

名前:

세계화와 함께, 발전된 기술은 인간에
있어서 옛날에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
편리한 생활이 가능하게 되었다. 따라서
매전의 불편한 것은 이제 사라져도 만
찮아라든가 사할 수 없어라든 의 견도
나오게 되었다. 그 중 신문과 잡지가
있다. 그러나 나는 신문이나 잡지가 없
어지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한다.
한제, 아무리 정보화 시대 가 되었다고
해도, 역시 따라올 수 없는 사람들 도
존재한다. 젊은 사람들이나 어느 정도 지공
의 시대에 적응할 사람들이 있지만, 한편
으로 그들은 그들의 할아버지나 할아버지들 어
떻게 해서든 따라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
있어서 아직 신문과 잡지는 사회의
면제고리이다.
그리고, 사랑의 감각은 달지 보느것의
로 늘 기약과, 집중력이 . 줄지않다. 실제로
자신이 직접 만져가며 읽거나 볼 편이
더 버리에 낫다. 또, 신문이나 잡지 등

그것을 읽으며 생각하느 것이 가능하다.
인터넷에서 읽은 것은 제대로 머리에
들어 오지않는다. 그것은 눈으로 는 컴퓨터
의 화면을 통해 기사등을 읽는 한편,
손으로 는 화면을 움직였다가, 내렸다 가 하
는 다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
가 제대로 머리에 들어 오지 않고 달지
읽었다라는 것이 될 수 있다.
하지만으로, 그 정보의 확실성의 문제
이다. 인터넷의 가장 큰 문제는 정보가
몰른지, 그경대면 인터넷상의 정보를 전
부 믿어야 하는지의 문제이다. 확실하지
않은 정보 등이 인터넷상에서 계속 존재
하고, 누군가 읽을지 모르는 채로 있다.
이런 여러가지 이유를 나는 사람에게
있어서 안심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신
문은 필요하다 고 생각한다. 인간이 만든
것에 물려다니는 것이 아닌, 인간이 기
술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.